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 분석*, **

Analysis of components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for the disabled and constraint factors for reporting

윤석민(영남대학교 교수) · 김재화*** (순천향대학교 교수)

Seokmin Yun *Yeungnam University* · Jaehwa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구성요소와 신고제약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선수, 지도자, 선수보호자, 그리고 장애인인권전문가 및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고 타당성 검토 및 내용타당도 비율, 수렴도, 합의도, 그리고 안정도 산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는 4개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신체적 폭력(강제심부름, 폭행, 감금), 성 폭력[(사이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적모멸감], 언어적 폭력(욕설, 협박, 놀림, 모욕, 폭언), 그리고 정신적 폭력[(사이버) 따돌림, 금품갈취]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신고제약요인은 3개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개인적 영역(친밀감, 묵인, 불안, 생존), 집단적 영역[인 힘의 불균형, 회유(보복), 불이익, 용인], 그리고 제도적 영역(불신임, 낮은 인식, 소문)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1차 조사의 집단적 영역에서 ‘용인’ 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합의수준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으로는 묵인과 힘의 불균형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components of (sexual)violence in sports for the disabled and why people hesitate to report (sexual)violence were identified. For the analysis, focus group interviews or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on athletes with disabilities, coaches, guardians, and experts in human rights for the disabled and experts in disability spor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ased on content validity ratio, convergence, consensus, and stability. The components of (sexual)violence in sports for the disabled were analyzed into four areas, which were physical violence (forced errands, assault, confinement), sexual violence[(cyber)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sexual contempt], verbal violence (swearing, intimidation, teasing, insulting, other verbal abuse), and psychological violence[(cyber)bullying, extortion]. The constraint factors for reporting (sexual)violence in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in three domains, which were the personal domain(intimacy, acquiescence, anxiety, survival), the collective domain [disproportionation of human power, conciliation(retaliation), disadvantage, tolerance], and the institutional domain(distrust, low awareness, rumors). As a result of the first Delphi survey, ‘tolerance’ in the collective domain showed below an average, so it was deleted from the second Delphi survey. In addition, other items that did not meet the standard value were acquiescence and imbalance of power.

Key words : sports for the disabled, (sexual) violence, component, constraint factor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8178).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jayjae@sch.ac.kr

I. 서론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인권(Sports Human Rights)은 ‘스포츠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의 기본원칙 4조 ‘스포츠는 인권이다’라는 명제 하에 스포츠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국가는 스포츠를 장려하고 스포츠 참여를 높이는 것을 인권 보장 확립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로 현대사회에서는 작용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임다연, 2022; 함은주, 2019; Yelamos, Carty, & Clardy, 2019).

본 연구에서 주요사항으로 연구하는 인권은 (성)폭력으로 인한 스포츠 인권침해로서 국내 스포츠 분야 또한 이러한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학생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국가인권위원회, 2007)을 시작으로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폭력은 폭행, 상해, 협박, 모욕, 강요, 따돌림, 성폭력, 강제적인 심부름 등의 원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대한체육회, 2019c)로서 2018년 국내 ‘미투운동’을 통해 알려진 스포츠계의 다양한 폭력은 다시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전상완, 김미숙, 2022; 함은주, 2019; Wilinsky & McCabe, 2021).

최근 국내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담당지도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폭로 하였고, 한 실업팀 선수는 감독과 팀닥터에게 폭행 및 동료선수의 목인과 동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계 인권침해사태는 국내뿐만 아니고 2018년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팀닥터인 Larri Nassar의 선수 성추행(sexual abuse)사건, 영국의 국가대표 수영코치의 10대 선수 강간 및 성폭행(Independent, 1995)을 비롯하여 BBC(2021)에서는 영국에서 스포츠지도자와 청소년 선수간 성관계 사례는 지금까지 160여건이 넘고, 80여명의 지도자들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BBC, 2018). 이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선진국에서도 스포츠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대중들이 집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서 스포츠인권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고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서효민, 차재혁, 2019; 전상완, 김미숙, 2022)되고 있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스포츠는 스포츠 현장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비롯하여 장애인비하, 이동권 및 접근권 등과 같이 스포츠에서 인권과 장애인 인권 측면에서 비인권적 상황이 중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민솔희, 조재훈, 2017). 국내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스포츠 인권 관련 이슈는 2012년 런던패럴림픽 보치아종목 수석코치의 선수들에 대한 성희롱을 비롯해 욕설 및 폭언과 폭행, 금품갈취 사건이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고(민솔희, 조재훈, 2017), 2015년 장애인태권도선수의 사망을 비롯하여 2019년 장애인국가대표 감독의 성추행 등 여러 종목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비롯한 폭언, 폭행

등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사건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2013)는 처음으로 2012 장애인체육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운동선수 및 지도자, 특수학교 체육교사, 그리고 장애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포츠 환경에서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단순 실태조사로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미흡한 실태조사였다(윤석민, 2015; 이장일, 한민규, 2017). 특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중 장애학생선수를 포함한 520여명의 장애선수 중 단 2명만이 구타경험이 있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없었다고 조사되면서 동시대 비장애인운동선수의 34%가 구타 및 (성)추행 등을 당한 경험 이 있다는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0)와 비교하여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후 정부 권고에 따라 2년 주기(2014년, 2016년, 2018년)로 장애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어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다.

2019년 조사결과 2012년과 달리 21.2%의 장애선수들이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을 경험(언어적 성희롱 6.1%, 시각적 성희롱 6.0%, 육체적 성희롱 5.7%, 기타 성희롱 2.6%, 디지털 성폭력 0.8%) 하였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선수들 중 무 대응은 전체의 35.0%에 이르고 50.3%는 이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운동선수들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가 비장애인운동선수와 비교하여 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피해 선수들이 무대응 하거나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은 비장애인운동선수보다 장애인운동선수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구성요소와 신고제약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해 성장하고 있는 국내 장애인스포츠 환경에서 건강한 장애인스포츠문화 도입을 비롯하여 인권이 확립된 장애인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들에게 장애인스포츠 발전에 대한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장애인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 분석을 위해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학령기 및 성인 장애인운동선수,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2차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구성요소와 신고제약요인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후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쳐 장애인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구성요소와 신고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장애인스포츠포츠(성)폭력에 대한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우선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20명과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12명을 유목적적표집(purposeful sampling)하여 선정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는 성별과 경력 그리고 운동종목(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을 고려하여 학령기 장애인운동선수 6명, 성인 장애인운동선수 6명, 학부모 4명, 그리고 장애인스포츠포츠지도자 4명으로 구성하였다. 종목 선정시 국내장애인체육 선수 및 동호인을 고려하여 가장 많은 선수 및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육상, 수영(개인종목), 농구(단체종목), 그리고 탁구(개인+단체종목)로 선정하였다.

학령기 장애인운동선수는 경력 3년 이상의 고등학생으로 구성하였고, 학부모 4명은 학령기 장애인운동선수 6명의 학부모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부모로 구성하였다. 성인 장애인운동선수는 25-35세 장애인운동선수 중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선수로 구성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포츠지도자 4명은 7년 이상의 지도경험을 비롯하여 실업팀 또는 국가대표 지도경력을 보유한 지도자로 한정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종목	연령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학령기운동선수 (n=6)	남 3명	육상, 수영, 농구	17.2±0.85	4.2±0.35
	여 3명	육상, 수영, 탁구	17.7±0.32	3.4±0.22
성인 운동선수 (n=6)	남 3명	육상, 수영, 농구	34.3±1.57	7.2±1.13
	여 3명	육상, 수영, 탁구	32.5±1.88	6.4±0.73
학부모 (n=4)	여 4명	-	45.3±3.27	-
스포츠포츠지도자 (n=4)	남 2명	육상, 수영	48.5±3.87	15.4±2.25
	여 2명	수영, 탁구	42.4±2.35	9.6±1.47

표 2. 델파이조사 참여자 특성 및 델파이조사 응답률

구분	선별기준	델파이조사 응답률	
		1차	2차
특수체육 전공 교수 (n=3)	- 장애인체육 인권관련 연구자 - 교수경력 5년 이상	3	3
특수체육 전공 박사 (n=2)	- 현장지도 경력자 - 유사연구 경험자	2	2
체육심리학전공 교수 (n=2)	- 특수체육관련 연구경력자 - 스포츠인권관련 연구자	2	2
특수체육 현장전문가 (n=3)	- 석사학위이상 - 지도 또는 선수경력 7년 이상 - 특수체육전공 교사 1인 포함	3	3
스포츠인권 전문가 (n=2)	- 장애인스포츠포츠인권 전문가 - 장애당사자	2	2
총 12명 (응답률, %)	12 (100)	12 (100)	12 (100)

선발된 델파이조사 패널은 <표 2>와 같은 선별기준을 통해 총 12명(특수체육전공 교수 및 박사 5명, 체육심리학전공 교수 2명, 현장전문가 3명, 스포츠인권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연구목적, 면담 및 온라인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선발하였다.

2. 연구절차 및 내용

장애인스포츠포츠(성)폭력에 대한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 분석을 위해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토대로 총 3단계의 연구절차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차적으로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에 근거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2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단계별 세부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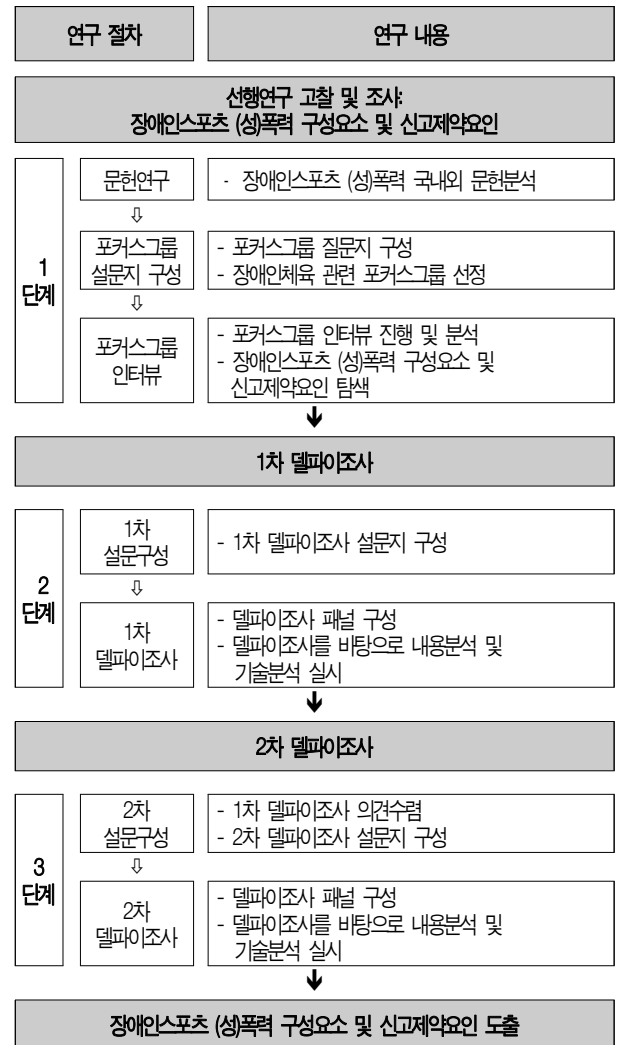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및 연구내용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1)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선행연구들과 국가인권위원회(2019, 2021), 오광진(2021), 그리고 Wilinsky & McCabe(2021)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 도출을 위한 문항선별 후 개방형질문지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하는 그룹은 5~8명이 적절하나(곽은희, 2018), 특정한 주제 또는 경험이나 사고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연구에서는 4~6명의 그룹이 적절하다(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6; McLafferty, 2004; Smithson, 2000)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배경을 지닌 4~6명을 동일그룹으로 편성(총 4그룹)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각 1회씩 그룹별 인터뷰를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실시하였으며 각 그룹당 인터뷰 시간은 120분~180분(M=158분)동안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사전 문헌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구성된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 3개영역과 신고제약요인 3개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당 3~5개의 하위영역, 즉, 최초 6개의 영역과 2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포커스그룹 집단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전 신뢰관계(rapport) 형성을 위해 편안한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추가 질문과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터뷰 및 녹취기록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녹취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부분들을 범주화하고 공통된 주제(theme) 및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및 범주화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6; Adler, Salanter, & Zumstein-Shaha, 2019). 또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특수체육과 교수 2인과 스포츠인권 전문가 1인에게 자료 및 해석된 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자문 받은 후 인터뷰 결과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델파이 조사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을 도출하고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초안을 바탕으로 총 2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와 신고제약 영역으로 구분하여 하위영역 구분과 내용범주 구성에 대해 델파이조사 패널에게 7개의 영역 및 영역당 하위요인에 대한 적합성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1점: 매우 부적합하다, 5점: 매우 적합하다)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 적합도 표기 및 추가적인 의견기술을 요청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각 항목별 4.0미만의 합의수준을 나타낸 항목을 삭제(조남정, 2016; 양정하, 2019; Williams & Webb, 1994) 하고 추가의견 기술에서 제시된 항목을 추가하여 패널에게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총 2차례의 델파이조사 설문은 온라인 및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으

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전화통화를 보충적으로 사용하였다. 델파이조사 응답률은 <표 1>과 같다.

델파이조사 자료분석은 Excel 2016 Program을 사용하여 각 영역 및 각 영역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수렴도(convergence), 합의도(consensus), 그리고 안정도(stability)를 산출하였다. CVR은 유의도 0.5 수준에서 본연구의 패널 수(n=12)에 따른 최소값 .56이상, 수렴도 .50이하, 합의도 .75이상, 그리고 안정도 .50이하의 조건을 모두 확보한 경우 충족된 타당도로 판단하였다(유현실, 2009; Aldridge & Sempik, 2003; Lawshe, 1975).

III. 연구결과

1.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

1) 포커스그룹 조사결과 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해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는 최초 3개 영역(신체적 폭력, 성 폭력, 언어적 폭력) 및 1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1개의 추가영역(정신적 영역)과 추가된 영역에서 3개의 추가 하위영역이 도출되어 <표 3>과 같이 4개영역 1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관련 포커스그룹 면담내용

범주	영역		하위영역
	신체적 폭력		강제심부름, 폭행, 감금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	성 폭력		(사이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적모멸감
	언어적 폭력		욕설, 협박, 놀림, 모욕, 폭언
	(추가) 정신적 폭력		강요, (사이버)따돌림, 금품갈취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제시된 장애인스포츠폭력 구성요소에 대해 인터뷰 참가자들은 모든 영역에 대해 동의 하였고 추가적인 영역으로 정신적 폭력과 이에 따른 하위영역으로 강요, (사이버)따돌림, 그리고 금품갈취를 추가 할 것을 언급하였다.

훈련 중일 때는 모두 열심히 하니까 폭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생활했는데 코치님께서 말로 혼낼 때가 있어요. 그땐 욕도 먹고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이 정도는 참을 만 했고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연습중이나 시합 중에 조금 못하면 애들이 야! 너 어제 ○○했냐? 하면서 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코치님은 가만히 있던지 웃고 넘겨요. 어떨까요? 지금은 이런 놀림에 짜증나고 많이 창피한 것 같아요.

(참여자 A: 학령기 운동선수)

모든 영역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는 선수생활을 오래해서 예전보다 훨씬 덜 하지만 어릴 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경기력이 좋은 저도 그랬는데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들은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보다가 2~3년 하다가 그만 두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주변에서 심하지는 않지만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자 H: 성인 운동선수)

저는 여자다 보니까 심하게 이러한 폭력을 당했다고 보진 않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몇몇이서 한명을 따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코치하고 선수들하고 짜고 한명을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단 따돌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동료 남자들이나 코치들이 가르쳐 준다고 막 몸을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지만 동의를 얻고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J: 성인 운동선수)

제 생각으로는 여기 제시된 내용보다 많은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아이는 운동을 한지 한 6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계속 데려가고 데려 오고하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업팀 입단이나 시험에서 잘 하려면 어느 정도 이러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복잡해요. 우리아이는 운동을 계속 하겠다는데 커서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참여자 N: 학부모)

스포츠지도자로서 인권교육도 받고 이러한 실태조사도 참여해보고 했습니다.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

면 합니다... 현재 많은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옛날습관이라고 해야 하나... 지도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잘 안 바뀌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라고 못하죠... 다른 코치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코치보다는 어린 선수들 간에 이러한 사태가 자주 발생된다고 합니다. (참여자 Q: 스포츠지도자)

2)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1차와 2차 조사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 4개 영역과 15개의 하위영역에 대한 내용구성의 타당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1차 조사결과 신체적 폭력 하위영역에서는 폭행(M=4.83)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가 산출됐고, 감금(M=4.33), 강제심부름(M=4.16)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하위영역에서는 (사이버)성폭력과 성폭행(M=4.83)이 동일하게 가장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성추행(M=4.75), 성적모멸감(M=4.08)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 하위영역은 욕설(M=4.83)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놀림(M=4.75), 모욕(M=4.58), 폭언(M=4.50), 협박(M=4.00)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폭력에서는 (사이버)따돌림(M=4.75)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고, 강요(M=4.58), 금품갈취(M=4.00)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에 대한 CVR중 패널 수가 12명일 경우 임계치($\geq .56$)보다 낮은 항목은 성적모멸감, 협박, 금품갈취로 분석되었으며, 수렴도($\leq .50$)를 충족하지 못한 항목은 협박과 금품갈취, 합의도($\geq .75$)에서는 성적모멸감, 협박, 그리고 금품갈취가 기준값보다 낮았으며, 안정도($\leq .50$)에서는 모든 값이 본 연구의 기본 값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의 내용구성 타당도

영역	1차 델파이조사							2차 델파이조사		
	M	SD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Rank	M	SD	Rank
<신체적 폭력>	4.44	± 0.69					-	4.58	0.55	-
강제심부름	4.16	± 0.71	0.67	0.50	0.75	0.17	12	4.33	0.49	12
폭행	4.83	± 0.34	1.00	0	1	0.08	1	4.92	0.29	1
감금	4.33	± 0.78	0.67	0.50	0.78	0.18	11	4.50	0.67	10
<성폭력>	4.63	± 0.67					-	4.63	0.67	-
(사이버)성희롱	4.83	± 0.58	0.83	0	1	0.12	1	4.92	0.29	1
성추행	4.75	± 0.45	1.00	0.38	0.85	0.10	5	4.67	0.49	8
성폭행	4.83	± 0.39	1.00	0	1	0.08	1	4.92	0.29	1
성적모멸감	4.08	± 0.90	0.33	1	0.5	0.22	13	4.00	0.95	13
<언어적 폭력>	4.53	± 0.68					-	4.52	0.72	-
욕설	4.83	± 0.39	1.00	0	1	0.08	1	4.92	0.29	1
협박	4.00	± 0.95	0.50	0.88	0.56	0.24	14	3.75	0.87	14
놀림	4.75	± 0.45	1.00	0.38	0.85	0.10	5	4.83	0.39	5
모욕	4.58	± 0.67	0.83	0.50	0.80	0.15	8	4.42	0.79	11
폭언	4.50	± 0.52	1.00	0.50	0.78	0.12	10	4.67	0.49	8
<정신적 폭력>	4.44	± 0.77					-	4.44	0.81	-
강요	4.58	± 0.51	1.00	0.50	0.80	0.11	8	4.75	0.45	7
(사이버)따돌림	4.75	± 0.62	0.83	0	1	0.13	5	4.83	0.39	5
금품갈취	4.00	± 0.95	0.50	0.88	0.56	0.24	14	3.75	0.97	14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에 대한 4대 영역과 하위영역의 내용구성 우선순위를 위한 1, 2차 델파이조사결과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은 신체적 폭력 영역에서 ‘폭행’, 성폭력 영역에서 ‘(사이버)성희롱과 성폭행’, 그리고 언어적 영역에서 ‘욕설’로 동일하게 1차 조사 평균 4.83, 2차 조사 평균 4.92로 분석되었다. 또한 1, 2차 델파이조사결과 가장 낮은 내용구성 타당도는 언어적 폭력 영역에서 ‘협박’ 그리고 정신적 폭력 영역에서 ‘금품갈취’로 1차에서는 평균 4.00 그리고 2차에서는 평균 3.75로 4.0미만의 합의수준을 나타냈다.

2.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신고제약요인

1) 포커스그룹 조사결과 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해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신고제약요인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는 3개 영역(개인적 영역, 집단적 영역, 제도적 영역) 및 10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영역에 대한 추가의견은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적영역의 하위영역에서 ‘용인’과 제도적 영역에서 ‘소문’이 추가하위영역으로 도출되어 <표 5>와 같이 3개영역 1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 5.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신고제약요인관련 포커스그룹 면담내용

범주	영역	하위영역
장애인 스포츠 (성) 폭력 신고 제약 요인	개인적 영역	친밀감, 묵인, 불안, 생존
	집단적 영역	낙인, 힘의 불균형, 회유(보복), 불이익, 용인
	제도적 영역	불신임, 낮은 인식, 소문

가끔씩 남자애들이 장난칠 때가 있어요. 이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짜증 나긴했죠... 훈련 중일 때는 모두 열심히 하니 폭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생활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주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애들이 장난치고 놀리는 것 가지고는 코치님한테 말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선수생활을 계속하면서 좀 더 알고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별거 아닌 건 괜찮은데 진짜로 힘들 때 어떡하지?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겨도 코치님한테는 절대 말 못 할 것 같아요. 코치님한테 말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참여자 E: 학령기 운동선수)

영역별 명칭만 보면 생각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팀 주장이나 고참선수들이 막 욕하고 심부름 시키고 하는데 코치님들은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경우요... 그리고 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신고 못 할 것 같아요. 특별해도요. 장애인체육회에 신고기관이 있지만 조사받고 하면 다 소문나잖아요. 그럼 선수생활하기 힘들죠.

(참여자 I: 성인 운동선수)

제가 아는 다른 실업팀 언니는 저한테 가끔 누구누구는 힘들어서 선수 그만두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야기 하는 것들 때문인데요. 꼭 참았다가 선수 그만둘 때 신고해야지 하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지금 신고를 한들 자기만 피해보고 또 다른 착한 선수들은 훈련 못하고... 팀 해체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불안하죠. 진짜 신고 하려면 큰맘 먹고 다 포기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자선수들 보다는 여자선수들이 피해는 많이 보지만 신고는 아마도 더 못할 걸요. (참여자 L: 성인 운동선수)

솔직히 지금은 크게 걱정 안 해요. 근데 애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성인이 되어서 실업팀이나 혼자 운동을 다니면 어쩌나 싶죠. 그때는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개인적영역이야 혼자 판단하고 그러면 되지만 참다 참다 신고했는데 거기서 잘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어려워요. 선수하는 게 죄겠네요. (참여자 P: 학부모)

솔직히 선수들 사이의 문제는 우리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수습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치들이 알게 되면 예전처럼 쉬쉬 하지도 않고 절차에 맞게 신고하는데... 이러한 신고절차를 모르면 여기저기 묻다가 소문 다 나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신고 도와주다보면 불통이 여기저기로 튀어서 여간 귀찮지 않습니다. 선수들 이야기를 듣고 바로 조치를 취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모든 부분이 신고제약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적절한 권한을 줘야 내부적으로 해결할건 해결하고 신고하고 신고 할건 신고하고 하죠.

(참여자 T: 스포츠지도자)

2)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신고제약요인 3개영역과 12개의 하위영역에 대한 내용구성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차 조사결과 개인적 영역 하위영역에서는 생존($M=4.50$)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묵인($M=4.33$), 불안($M=4.25$), 그리고 친밀감($M=4.0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집단적 영역 하위영역에서는 불이익($M=4.58$)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낙인($M=4.42$), 힘의 불균형($M=4.25$), 회유(보복)($M=4.08$), 그리고 용인($M=3.58$)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영역 하위영역은 불신임($M=4.75$)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소문($M=4.66$), 그리고 낮은 인식($M=4.33$)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신고제약에 대한 CVR중 패널 수가 12명일 경우 임계치($\geq .56$)보다 낮은 항목은 묵인, 힘의 불균형, 그리고 용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렴도($\leq .50$)를 충족하지 못한 항목은 묵인과 힘의 불균형, 합의도($\geq .75$)에서는 묵인과 힘의 불균형이 기준값 보다 낮았으며, 안정도($\leq .50$)에서는 모든 값이 본 연구의 기본 값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신고제약요인에 대한 3대 영역과 하위영역의 내용구성 우선순위를 위한 1차 델파이조사결과 우선 집단적 영역의 하위영역인 ‘용인’의 평균값($M=3.58$)이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4.0미만의 합의수준을 나타냄으로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삭제 하였다.

표 6. 장애인스포츠허 (성)폭력 신고제약요인의 내용구성 타당도

영역	1차 델파이조사							2차 델파이조사		
	M	SD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Rank	M	SD	Rank
〈개인적 영역〉	4.29	± 0.68					-	4.40	0.61	-
친밀감	4.08	± 0.51	0.83	0	1	0.13	10	4.33	0.49	7
목인	4.33	± 0.89	0.50	0.88	0.65	0.20	6	4.12	0.83	11
불안	4.25	± 0.62	0.83	0.50	0.75	0.15	8	4.42	0.51	6
생존	4.50	± 0.67	0.83	0.50	0.80	0.15	4	4.67	0.49	3
〈집단적 영역〉	4.15	± 0.90					-	4.25	0.84	-
낙인	4.42	± 0.79	0.67	0.50	0.80	0.18	5	4.58	0.51	5
힘의 불균형	4.25	± 0.87	0.50	0.88	0.61	0.20	8	4.17	0.94	10
회유(보복)	4.08	± 0.90	0.67	0.50	0.75	0.22	10	4.33	0.65	7
불이익	4.58	± 0.79	0.67	0.38	0.85	0.17	3	4.83	0.39	1
용인	3.58	± 0.67	0.33	0.50	0.75	0.19	12	-	-	-
〈제도적 영역〉	4.58	± 0.65					-	4.58	0.60	-
불신임	4.75	± 0.45	1.00	0.38	0.85	0.10	1	4.67	0.49	3
낮은 인식	4.33	± 0.78	0.67	0.50	0.78	0.18	6	4.25	0.75	9
소문	4.66	± 0.65	0.83	0.38	0.85	0.14	2	4.83	0.39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가장 높은 평균값은 제도적 영역에서 ‘불신임(M=4.75)’으로 분석되었고, 2차 델파이조사결과에서는 동일영역인 제도적 영역에서 ‘소문(M=4.83)’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차 델파이조사결과 4.0이상의 평균값 중 가장 낮은 내용구성 타당도는 개인적 영역에서 ‘친밀감’과 집단적 영역에서 ‘회유(보복)’로 평균값 4.08로 분석되었으며,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인적 영역에서의 ‘목인(M=4.12)’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논의

국제 장애인스포츠허 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는 2019~2022년 장애인선수들의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을 회원국 모두에게 권장하고 있다(전민수, 2021). 국내 장애인체육 또한 그동안 언론 및 현장에서 장애인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윤석민, 김재화, 2020). 하지만 최근 비장애인체육계를 시작으로 장애인체육계 또한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을 통해 다양한 인권유린 현상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국내 체육환경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들의 체육환경에서도 종종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국내 체육계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신고기관을 비롯하여 인권교육 및 다양한 피해사례를 교육하고 상황발생시 신고절차를 교육 및 안내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체육선수, 지도자, 부모들은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조은혜, 김수연, 김혜진, 2021).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장애인체육 및 인권활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장애인스포츠허 (성)폭력 구성요소 및 신고제약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스포츠허 (성)폭력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성)폭력 구성요소인 신체적 폭력, 성폭력, 언어적 폭력, 그리고 정신적 폭력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어왔고 현재에도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다(김양래, 2010; 김지선, 김인형, 2017; 김혁, 2016; 대한체육회, 2019a, 2019b).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비장애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선수에게 바탕을 두고 진행된 본 연구의 논의사항은 비대면 상황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구분을 비롯한 장애인선수들의 특성을 반영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상황의 (성)폭력 구성요소를 (사이버)성희롱, (사이버)따돌림 등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인터뷰와 델파이조사 결과 직접적인 대면상황보다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우선순위 또한 상위를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고(Samara, et al., 2017), 이러한 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은 지속적이고 많은 횟수의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자살충동은 2.23배 높다고 조사되고 있다(LA Times, 2014). 따라서 장애인운동선수들의 습관과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스포츠허 (성)폭력 신고제약요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스포츠허 (성)폭력 신고제약요인과 관련하여 개인적 영역, 집단적 영역, 그리고 제도적 영역을 큰 틀로 하여 세부영역을 제시/분석 하였다. 영역에 따른 신고제약요인 측정결과 우선순위 1~3번째가 3가지 영역에 각 하나씩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개인적 영역에서는 ‘생존(rank 3)’, 집단적 영역에서는 ‘불이익(rank 1)’, 그리고 제도적 영역에서는 ‘소문(rank 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영역에서 주요 신고제약요인들이 있고 그 결과 피해자로서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낸 항목들은 직장생활 중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직장생활을 통한 수입과 연관되어있어 신고를 기피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이는 한시완, 유현미, 허정훈(2021)의 조사에서 스포츠인권침해는 실업팀 선수들에게 보다 높게 나타나며 ‘피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인 코치와 감독으로 부터의 폭력, 권한남용 등이 발생되며 이는 재계약, 선수기용, 방출, 진로 까지 결정 할 수 있는 그들의 절대권력에 기인한다고 밝힌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장애인스포츠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스포츠에서의 신고 계약요인을 비롯한 제약강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구성요소와 신고 계약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선수, 지도자, 선수 보호자, 그리고 장애인인권전문가 및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고 타당성 검토 및 내용타당도 비율, 수렴도, 합의도, 그리고 안정도 산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는 4개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신체적 폭력, 성 폭력, 언어적 폭력, 그리고 정신적 폭력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당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폭력: 강제심부름, 폭행, 감금
- 성 폭력: (사이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적모멸감
- 언어적 폭력: 욕설, 헐뜯, 놀림, 모욕, 폭언
- 정신적 폭력: 강요, (사이버) 따돌림, 금품갈취

-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으로는 성적모멸감, 헐뜯, 그리고 금품갈취로 분석 되었다.

-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신고계약요인은 3개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개인적 영역, 집단적 영역, 그리고 제도적 영역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당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적 영역: 친밀감, 묵인, 불안, 생존
- 집단적 영역: 낙인, 힘의 불균형, 회유(보복), 불이익, 용인
- 제도적 영역: 불신임, 낮은 인식, 소문

-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구성요소에 대한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조사의 집단적 영역에서 ‘용인’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합의수준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으로는 묵인과 힘의 불균형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인 (성)폭력 구성요소 및 신고계약요인으로 분석된 자료는 기초적인 자료로서 추후 보완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수행 중 장애인스포츠 (성)폭력 신고계약요인과 관련된 자료로 신문사설 또는 관련영화 등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연구를 위한 과학적인 자료는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신

고계약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곽은희(2018).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천 사례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국가인권위원회(2007). **스포츠 인권 현장**.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0).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2019).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 국가인권위원회(2021). **스포츠인권 현장·가이드라인 정비연구**.
- 김성재, 김후자, 이정자, 이선옥(2006).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양례(2010). 학생운동선수 인권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37-53.
- 김지선, 김인형(2017). 영화 <4등>에서의 엘리트 체육 지도자와 선수 어머니의 서레이드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2), 25-40.
- 김혁(2016). **스포츠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탐색**.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대한장애인체육회(2013). **2012 장애인체육 (성)폭력 실태조사**.
- 대한체육회(2019a). **스포츠인권보호 업무처리 매뉴얼**. 클린스포츠센터.
- 대한체육회(2019b).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대한체육회(2019c).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드**. 클린스포츠센터.
- 민솔희, 조재훈(2017). 인권 패러다임 관점의 장애인 체육활동 모형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1), 17-41.
- 서효민, 차재혁(2021). AHP를 활용한 학생운동선수의 스포츠 성폭력 인식 평가요인 중요도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9(1), 657-668.
- 양정하(2019). **도박중독 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유현실(2009).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석민(2015). 장애인운동선수의 인권확립과 복지향상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3(1), 1-12.
- 윤석민, 김재화(2020).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인권 측정**. **한국체육학회지**, 59(3), 413-425.
- 이장일, 한민규(2017). 엘리트 장애인운동선수의 인권 인식에 관한 연구. **스포츠사이언스**, 34(2), 17-25.
- 임다연(2022). 스포츠인권 연구의 현황과 향후 방향성 모색. **교육문화연구**, 28(2), 583-597.
- 전민수(2021).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교육 알람을 위한 성인지감수

- 성 도구 개발. *스포츠사이언스*, 39(3), 11-19.
- 전상완, 김미숙(2022). 영국의 스포츠 성폭력 피해 현황 및 지원제도 고찰 : 국내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7(1), 209-221.
- 조남정(2016). 상담전공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7(3), 23-43.
- 조은혜, 김수연, 김혜진(2021). 뉴스에 나타난 여성스포츠선수 관련 이슈의 변화: 키워드네트워크 활용. *스포츠사이언스*, 39(2), 311-320.
- 한시완, 유현미, 허정훈(2021). 직장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체육과학연구*, 32(3), 391-402.
- 함은주(2019). 사람 중심의 스포츠: 포용국가와 스포츠 인권. *스포츠과학*, 146, 16-21.
- Adler, K., Salantera, S., & Zumstein-Shaha, M. (2019). Focus group interview in child, youth, and parent research: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8, 1-15.
- Aldridge, J., Sempik, J. (2002). *Social and therapeutic horticulture: Evidence and messages from research*. Loughborough University. UK.
- BBC (2018.12.05). 80 coaches convicted of child sex abuse. *BBC Sport*. <https://www.bbc.com/sport/football/46453955>
- BBC (2021.03.09). 'Loophole' to close to protect teenagers from potential abuse from sports coaches. <https://www.bbc.co.uk/sport/56234559>
- Independent (1995.09.28.). Former Olympic coach gets 17 years for sex attacks. <https://www.independent.co.uk/news/former-olympic-coach-gets-17-years-for-sex-attacks-1603214.html>
- LA Times (2014.04.10). Teens taunted by bullies are more likely to consider, attempt suicide.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8, 563-575.
- McLafferty, I. (2004). Focus group interviews as a data collecting strategy. *Methodological Issues in Nursing Research*, 48(2), 187-194.
- Samara, M., Burbidge, V., El Asam, A., Foody, M., Smith, P. K. & Moris, H. (2017). Bullying and cyberbullying: Their legal status and use in psychological 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of Public Health*, 14(12), 1449.
- Smithson, J. (2000). Using and analysing focus groups: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3(2), 103-119.
- Wilinsky, C. L., & McCabe, A. (2021). A review of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elite child athletes by their coaches. *Sports Coaching Review*, 10(1), 84-109.
- Williams, P. L. & Webb, C. (1994). The Delphi technique: a methodological discuss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1), 180-186.
- Yelamos, M. G., Carty, C. & Clardy, A. (2019). Sport: A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omoter of human rights, and vehicle for health and well-being for all. *Sport, Business and Management*, 9(4), 315-327.